

‘양파의 눈물’ 저장 늘어 도매 가격 70% 뚫 ↓

전량 수매·가격보장 ‘민관합동 양파수급 협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재·인건비 상승 등 농가 경영악화 심화...대책 마련 시급

2021년산 양파 재고량이 전년보다 15% 가량 증가하면서 양파 도매 가격이 70% 가까이 하락했다.

농민 측은 정부의 수급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저장 양파 전량 수매와 가격 보장을 위한 ‘민관합동 양파수급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양파 수급 대책 수립 간담회’에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양파 재고량은 17만6000t(정부 비축 9500t 포함)으로, 전년(15만4000t)보다 14.6% 증가했다.

평년(15만5000t) 보다는 13.9% 늘어난 규모다.

정부 비축물량을 제외하면 재고량은 전년보다 8.1%, 평년보다 7.4% 많은 양이다.

같은 기간 공영도매시장 평균 양파 거래가격은 1kg에 478원으로, 지난해 1월 평균 가격 1511원에 비해 68% 폭락했다.

양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2021년산 재고량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제주 극조생 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 제주 극조생 양파 출하량은 4만5000t으로, 저장양파 몰려가면 합하면 예상 공급량이 11만3000t까지 늘어난다. 이는 평년 공급량 10만8000t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4월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고흥에서 출하되는 8만5000t에 저장양파 2만2000t, 수입양파 4000t까지 더하면 4월 예상 공급량은 11만1000t이 된다. 평년(10만7000t)보다 4.1% 많은 양이다.

제주 조생종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1137ha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단 5월부터는 전남 조생·중만생종 재배면적이 줄면서 공급량이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무안과 함평 등지에서 12만8000t이 공급되고 저장양파가 소진되면 전체 공급량은 12만9000t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올해 전남 조생 양파 재배면적은 1514ha로, 전년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측했다.

올 하반기 전국 양파 공급량은 104만8000t

■2월~6월 양파 공급량 전망

기간	'22년 예상 공급량			합계	평년 공급량	평년비 증감율
	저장양파	수입	'22년산			
2월	81	1.5	-	82.5	77	7.1
3월	64	3	45(제주)	113	108	4.8
4월	22	4	85(제주·고흥)	111	107	4.1
5월	-	1	128(무안·함평)	129	129	0.4
6월~	-	29	1,048(전국)	1,077(108)	1,187	-9.3

(단위 : 천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로, 수입양파 2만9000t을 더해도 평년 공급량(118만7000t)보다 9.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장 양파 값 폭락과 양파 수급과 유통혁신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양파농가 요구서’를 공유하며 정부에 양파 수급 대책을 촉구했다.

요구서에는 농협과 순수 농가 저장 양파에 대한 정부의 전량 수매와 농가 지원 등 농가소득손실

분 보전 대책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 “조생 양파 재배면적의 30% 산지 폐기와 산지 폐기 단가를 생산비 조사 등을 통해 생산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서 농협과 농가 지출비율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와 농

사용 기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양파 농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생산비 보장 법제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과 양파 등 농산물 부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농민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과 노은준 한국양파연합회장,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 오창용 제주양파비상대책위원장, 김천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장, 배옥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급이사, 하명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김상엽 제주도청 식량원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동구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특례보증



지난 11일 광주동구청에서 열린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식’에서 임택(가운데) 청장과 송중욱(오른쪽) 은행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문 제공)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달 11일부터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신보는 동구, 광주은행과 지난 11일 ‘2022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구청과 광주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1억원을 보증재원으로 12억 원을 동구지역에 보증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최대 3000만원, 보증료율 연 0.7%, 보증기간 최장 5년이다.

동구는 해당 소상공인에게 1년 기준 연 2.5%씩 2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1년 동안 0.2% 보증료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해당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신보 홈페이지에서 특례보증예약상담을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 시장격리 취지 벗어나...추가 매입해야”

여당 의원들 입장문 발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추가 매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시장격리 쌀 입찰에서 평균 낙찰가는 6만3763원(40kg 조곡)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6만8000~6만900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입장문을 낸 농해수위 의원들은 “2021년산 쌀 과잉생산물량 20만t 시장격리 낙찰 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며 “정부의 쌀 시장격

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27만에 달하는 초과 생산량 통계가 지난해 11월 발표됐음에도 연말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농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물가관리 차원에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획재정부 입장은 정부의 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가(기준가격)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쌀 시장격리 취지에 맞게 양곡관리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번엔 유찰된 5만5000t과 과잉 생산물량 7만t에 대한 시장격리도 적정가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자조금 통합 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3년 동안 사업비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원예농산물 자조금 역량 강화를 위해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다음달 11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매년 10억원 한도 내에서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의무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자조금 통합 플랫폼 운영, 자조금기출시스템 개발·운영 및 품목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전용 ‘호랏차차 디지털예금’ 출시

최고 연 2.25% 금리

광주은행이 올해 두 번째 임인년 호랑이의 해 맞아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은 스마트뱅킹 전용 ‘호랏차차 디지털예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호랑이 해에 태어났거나 이름에 ‘호’가 들어간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주는 ‘호락호락(虎樂)적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한 ‘호랏차차 디지털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12개월 또는 13개월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 1000억원 한도로 판매 예정으로 한도 소진 때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본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1.75%, 13개월 기준 연 1.90%이다. 우대금리 연 0.35%포인트를 더하면 12개월은 최고 연 2.10%, 13개월은 최고 연 2.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첫 거래고객이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예금 가입일 전전월말 기준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수익증권, 신탁, ISA, 방카슈랑스, 대출 등의 계좌 및 거래가 없는 경우 연 0.35%포인트를 적용한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2022년 윙윙 호랑이의 기운과 함께 고객님의 호기로운 금융생활의 시작을 응원한다”며 “새해에도 지역민과 고객님의 금융생활 동반자로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금융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가고 싶은 섬 특별보증’

전남신보, 최대 5000만원

최초 1년 ‘무보증료’ 우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전남지역 섬과 어촌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전남신보는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14일부터 ‘전남 가고 싶은 섬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전남 섬과 어촌지역 경제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용보증 대상은 전남 섬과 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정책자금과 연계 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실행 후 최초 1년 동안 ‘무(無)보증료’가 우대 적용된다.

한편 전남신보는 전남 섬과 어촌을 찾아가 보증·대출 상담 및 접수를 해결해주는 ‘도(島)란도란 원스톱 보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